

한 중 일 고대설화에 나타난 이류 교유와 애욕의 의미

The Meanings of the Companionship and Lust with the Dissimilar in East-Asian Ancient Folklore

저자 (Authors)	Seo, Cheol-won
출처 (Source)	진단학보 (119) , 2013.12, 149-170(22 pages) THE CHIN-TAN HAKPO (119) , 2013.12, 149-170(22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67770
APA Style	(2013). 한 중 일 고대설화에 나타난 이류 교유와 애욕의 의미. 진단학보(119), 149-17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1.229.139.*** 2021/09/17 10:1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중·일 고대설화에 나타난 이류 교유와 애육의 의미*

徐 徹 源

(서울대)

〈目 次〉

- | | |
|---------------------|------------------|
| I. 문제 제기 | III. 이류와의 애육의 의미 |
| II. 이류 교유의 제 양상과 구분 | IV. 맺음말 |

〈국문요약〉

본고는 동아시아 각국의 고대설화에 나타난 인간과 이류와의 애육을 포함한 교유의 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중·일 각국의 인간성과 이류에 대한 시선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논의의 주 관심사였던 이류와의 애정, 교혼만이 아닌 공감, 학문적 소통, 퇴치, 동화, 귀속 등 여러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이류 교유'라는 범주에서 다룰 것이다.

고대 중국의 설화에서 이류는 '인간적'인 요소를 갖추고자 인간에게 접근하는 반면, 오히려 인간이 이들에게 비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서로 낯선 존재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인간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요재지이』의 애정담은 이류가 인간 사회에, 인간이 이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각각 보여줌으로써 이 고민이 바람직하게 해결될 단서를 시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대 중국의 이류는 애정을 포함한 인간과의 교유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공동체 전체에 결부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대 한국과 일본의 이류는 '애육'을 서사의 계기로 삼으면서, 또 한편으로 각국의 문화사적 관심사를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불교와 토속신앙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상대편의 이질성을 이류, 요괴 등으로 취급한 한편, 한국은 이류와의 관계에서 언어를 통한 약속과 그 성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고대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각자 '인간적'인 요소를 모색, 규정했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이류 교유, 수신기, 요재지이, 삼국유사, 일본영이기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다.

이 논문은 2012년 11월 24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개최한 '동아시아학문학, 공동성과 고유성 - 동아시아고전학의 가능성과 난관'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정 토론을 맡아 도움을 주신 윤재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I. 문제 제기

본고는 한·중·일 동아시아 각국의 고대설화에 나타난 이류 교유의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이류의 서사적 역할과 ‘인간적’¹⁾인 것을 향한 갈망을 검토하고, 그들 사이의 ‘애욕’이 지닌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이 유형의 중심처럼 여겨졌던 ‘冥婚小説’, ‘人鬼交婚[歡]’, ‘屍愛說話’ 등의 용어 대신, 보다 넓은 범위의 ‘이류 교유’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범주에서 이류와의 애욕은 양자 사이의 공감, 학문적 소통, 퇴치, 동화, 귀속 등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다만 『聊齋志異』를 비롯한 특정 문헌이 애정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²⁾ 특히 이 부분에 편찬자의 창의적 재구성이 많이 개입되었던 만큼³⁾ ‘애욕’이라는 화소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과 이류 사이의 애정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관계의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귀신·요괴담 속의 이류와 이계를 낫선 존재에 대한 욕망 또는 합리적 세계로부터의 이탈로 해석하거나,⁴⁾ 명혼 화소를 不遇의 울분과 知友에

1) 여기서 ‘인간적’인 것을 그 자체로 닫힌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사이의 대척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본고의 논의 또한 더 큰 설득력을 갖출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간적’인 것의 범주를 애초부터 닫힌 모양새로 규정·한정짓기보다, 각각의 설화를 향유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친 전승을 통해 모색하고 꾸려나갔던 귀납적 범주로 전제하고자 한다. 이들 설화는 인간적인 것, 굳이 달리 말하자면 ‘人性’을 배타적인 개념으로 탐구한 성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한 공동체가 정한 규정과 관습이 통하지 않는 다른 공동체의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류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범주란 무엇인지를 나름의 방식대로 찾아 이야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설화의 인간적 요소에 대한 탐색과 성찰은 보기에 따라 단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경험과 인식에서 말미암은 탓에 설화들끼리의 긴밀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인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를 이류와 인간 사이의 인간적인 것에 대한 논쟁처럼 풀이하여 관점과 다른 관점의 교집합과 여집합을 나눈다면, 설화문학이 갖춘 역동성과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몰이해 또는 단순 도식에 의한 환원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2) 배병균, 『애정소설의 한 양상 - 『聊齋志異』의 경우』, 『인문학지』 11,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1994, p.29에 따르면, 490여 편의 『요제지이』 전체 작품 가운데 100여 편이 애정을 제재로 삼았는데, 이는 『수신기』 460편 가운데 남녀관계를 다룬 것이 20여 편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한다.

3) 김혜경, 『『聊齋志異』에 나타난 蒲松齡의 작가의식 - 人鬼交婚小説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35, 1995, p.120.

4) 김정숙, 『17,18세기 한중 귀신·요괴담의 이탈과 욕망』,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pp.5~35에서 귀신·요괴담을 즐기는 심리적 요인을 낫선 세계에 대한 불안한 호기심 또는 금기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찾아, 이 불안과 금기를 인간의 가학적·피학적 욕망으로부터 찾고 있다. 또한 『천예록』·『요제지이』 등의 귀신·요괴담이 창작된 배경으로 편찬자의 여유로운 삶

대한 갈망⁵⁾으로 분석했던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춘 기존 이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작품이나 문헌 또는 소설사 전체의 거시적 논의에서 포착하지 않았던 관점을 덧붙임으로써 해당 유형을 이해하는 방법론을 확충하자는 뜻이다.

논의 대상은 중국의 『搜神記』와 『요재지이』, 한국의 『三國遺事』와 『殊異傳』 逸文, 일본의 『日本靈異記』 등에 수록된 설화군 가운데 이류가 서사 전개에 동인 혹은 계기를 제공했다고 파악한 몇몇 작품이다. 논제를 ‘고대설화’라고 다소 범박하게 잡았지만, 이들 문헌이 각국의 설화집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기는 해도 그 수록된 텍스트를 형성 당시의 모습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⁶⁾ 그러나 이런 성격의 의혹 탓에 논의를 멈춘다면, 고대의 문학과 문화 유산에 달리 다가갈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개별 문헌의 국적과 시기에 따른 차이 또한 본고에서는 크게 유념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구획과는 구별되는 구도를 설정하여 한·중·일 공통의 유산을 차별 없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 의식에 일단 충실하기 위해서이며, 문헌·국적과 관련한 방법론은 추후의 논의로써 보완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류 교유에서 벌어지는 학문적 소통, 퇴치, 이류 사이의 동화 등 다양한 양상을 구분할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교유’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애육’의 화소가 갖는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류의 행위와 사고를 중심으로 ‘애육’ 관련 작품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인간을 서사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중·일을 한자리에서 아울러 비교하는 대신 2장에서 중국 설화를, 3장에서 한·일 설화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⁷⁾ 이어서 본론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의 처지를 강조하였다.

- 5) 정환국, 「나말여초 전기의 ‘육망의 형식화’에 대하여」, 『초기 소설사의 형성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p.24.
- 6) 한국의 문헌들은 적어도 설화 유통과 문헌상의 정착 사이에 4, 5세기 이상의 시기적 차이가 있으며, 현존하는 『수신기』는 明代 중엽 胡應麟(1551~1602)에 의한 集錄本 20권으로 원작의 30권과는 분량의 차이가 크다.
- 7) 이러한 논지 전개를 취한 이유는 중국의 사례는 이류 교유의 제 양상이 ‘인간적’인 것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 다소 짙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국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 이류의 상징적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본론에서 드러나겠지만, 중국의 『수이전』과 『요재지이』는 인간의 공동체에 편입하려는 이류와 그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라는 서사 전개 자체가 눈길을 끈다. 반면에 『삼국유사』와 『일본영이기는 이류가 특정 집단을 표상하거나, 이류의

II. 이류 교유의 제 양상과 구분

1. 교유 혹은 퇴치의 대상으로서 이류

인간은 귀신을 비롯한 이류를 이계의 존재로서 멀리 하고자 하는 반면에, 이류는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잡아먹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방식의 학문적 소통을 지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동기의 선악 여부를 떠나 늘 상처 입는 쪽은 이류인 경우가 많다. 무귀론을 주장했던 학자에게 나타나 귀신의 진면목을 보여 병으로 죽게 만드는 사례(『수신기』: 378번 작품)도 드물게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귀신을 비롯한 이류는 퇴치당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다.⁸⁾ 심지어 어리숙하게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고는 붙잡혀서 시장에 팔려가는 굴욕(『수신기』: 393번 작품)을 겪기도 한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류에 대한 인간의 편견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도 있다.

그때 燕昭王 능묘 앞에 너무 오래 묵어 변술을 아는, 털이 얼룩덜룩한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글 읽는 선비로 둔갑하여 張華를 찾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연소왕 능묘 앞에 서 있는 華表한테 물었다. “이같은 용모와 재간이면 장사공을 만날 만하겠지?” “임자는 말이 변설이어서 못 해내는 일이 없지만 총명하고 박학다식한 장화를 속여 넘기기는 어려울 걸세. 오히려 모욕을 당하든지 자칫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 잘못하면 공연히 천년 얻은 임자의 본체를 잃게 되고 또 그 재앙이 나에게도 미칠 수 있네. 그러니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걸세.” 화표가 이렇게 말했지만 여우는 듣지 않고 명함을 들고 장화를 만나러 갔다. (…… 장화는 소년의 재주와 학식이 너무도 비상한 것에 놀라 귀신이나 여우인 것으로 의심하고는, 사냥개로 식별하려다가 실패하자 천년 묵은 여우를 식별할 수 있는 천년 넘은 신목을 찾아 연소왕 능묘의 화표를 꺾어오게 한다. 그 전에 소년이 墨子の 兼愛說을 들어 이러한 행동의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듣지 않는다.)

사자가 그 화표를 찢어 넘기니 천년 묵은 마른나무 화표에서 피가 흘렀다. 화표를 가져다 불을 피우고 그 빛으로 소년을 비추자 여우의 정체가 드러났다. “내가 없었더라면 이 두 괴물은 천년이 넘어도 잡지 못할 것이다.” 장화의 말이었다. 그리고는 여우를 끓는 물에 삶아 죽였다.⁹⁾

관심이 문화사의 특정 요소에 머무는 등 이류 교유가 다른 그 무엇의 상징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목차를 구성하였다.

8) 袁陽, 박미라 옮김, 『중국의 종교문화(原題: 生死事大)』, 길, 2000, p.41 참조.

9) 於時燕昭王墓前, 有一斑狐, 積年能爲變幻, 乃變作一書生, 欲詣張公. 過問墓前華表曰: “以我才貌, 可得見張司空否?” 華表曰: “子之妙解, 無爲不可. 但張公智度, 恐難籠絡, 出必遇辱, 殆不得返. 非但喪子千歲之質, 亦當深誤老表.” 狐不從, 乃持刺謁華. (……) 使乃伐其木, 血流, 便將木歸, 燃之以照書生, 乃一斑狐. 華曰: “此二物不值我, 千年不可復得.” 乃烹之. (『搜神記』, 권 18-421. 『搜神記』 번역은 이원길 역, 『수신기』 I·II, 연변인민출판사, 2007에 따랐으며, 이하 같다).

이 설화에서 여우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다만 장화라는 사람과 학문적 소통을 맺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러한 욕망이 불우한 처지에서 지우를 만나고 싶어 했던 전기소설의 주인공과 달랐던 점은, 욕망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없었다. 일시적인 기분으로 당대의 명사를 사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여우는 천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축적된 인간의 교양을 모두 익혔다. 그것을 당대의 명사를 통해 검증받고 싶었을 정도로, 여우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장화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갖춘 여우를 요괴라고 단정한다. 이는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한 시기심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요괴를 퇴치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인지, 또는 알팍한 시기심 탓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장화는 여우에게 가혹한 시험을 요구한다. 사냥개와 천년 묵은 고목을 통해 여우를 살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우는 목자의 ‘겸애설’이라는, 인간이 만든 인간적인 논리를 통해 반박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장화가 마녀사냥에 가까운 맹목을 앞세우는 반면에, 그에 대한 여우의 저항은 인간적인 논리와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장화는 여우를 사정없이 참혹하게 죽인다. 장화에게 이류는 학문적 소통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 선악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견하는 족족 잡아 죽여야 하는 적대의 대상인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간적인 논리와 감성이 요괴인 장화에게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대신, 인간 사회의 최고 지식인이라 할 만한 장화는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포용보다는 무조건적 배제와 비인간적 학대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요컨대 이 설화는 이류가 추구한 ‘인간적인 것’을 과연 인간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의문은 다음의 요괴 퇴치담에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王生이 또 극력 발뻘하니까 그는 발길을 옮기면서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리석은지고! 세상에는 죽을 길로 들어서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있긴 있구나!” 왕생은 도사의 말이 심상치 않았으므로 자신이 데이고 온 여자에 대해 더럭 의구심이 생겼다. 하지만 곰곰이 씹어볼수록 @그토록 아름다운 여자는 절대로 요괴일 리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도사가 제앙을 물리쳐준다는 구실로 돈을 뜯어내려 수작을 부렸다고 속편하게 해석하고 말했다.

10) 장화가 지닌 ‘배제’의 논리는 이주민이 원주민의 신앙 대상을 요괴나 마귀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닮았다. 이주민에게 원주민은 인간적 교유나 이해의 대상이기보다는 지배하거나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인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갈등에 대해서는 본고의 III. 1. 참조.

얼마 후 왕생은 서재의 문 앞에 이르렀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어쩌다 문이 잠겼을까 의아해하면서 무너져 있는 모퉁이 담장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실의 문까지 잠겨 있었다. 그가 살금살금 걸어가 창문 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더니 얼굴색이 푸르탱탱하고 툇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돋은 흉측한 귀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㉑귀신은 사람 가죽을 침상 위에 펴고 여러 가지 색깔의 붓으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윽고 그림이 다 완성되자 귀신은 붓을 내던지고 가죽을 들어 올려 마치 옷자락의 먼지를 털 듯 흔들며 몸에 걸친 뒤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했다.

왕생은 이 광경을 목도하자 간이 쿵알 만해져서 짐승처럼 엎드려 살금살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서둘러 도사를 쫓아갔으나 그는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마침내 별관에서 도사와 마주친 왕생은 물어앉아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제가 그 요물을 쫓아드리지요. ㉒이놈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야 겨우 제 본모습을 감출 수 있는 몸뚱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저도 차마 그놈의 목숨까지는 빼앗고 싶지 않군요.”¹¹⁾

이 설화에서 남주인공 왕생은 어느 날 근본을 알 수 없는 미녀를 만나 집으로 데려온다. 도사가 이 사실을 짐작하고 경고하지만, 왕생은 위의 ㉑에서처럼 미녀가 요괴일 리 없다는 확신을 고수한다. 왕생에게 ‘인간적’인 것의 기준은 외모의 아름다움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기준은 ㉒의 장면에 의해 부정된다. 이 장면을 통한 부정은 외모가 인간적인 것의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내세우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요소의 기준이란 이렇게 튼실하지 못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㉒에 따르면 그 튼실하지 못한 요건이나마 갖추기 위해 이 요괴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 고생의 정도가 얼마나 막심했으면 이렇게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마 목숨까지 빼앗고 싶지는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설화의 맥락을 해치는 듯한 대사이다.

이 설화의 맥락을 인간 중심으로 파악하자면, 식인귀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설화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어긋나 있다. 첫째, 식인하기까지 단계가 식인귀의 입장에서 번거롭고 불필요하다. 가령 왕생은 침상에서 뱃가죽을 찢겨 살해당하는데, 이때 식인귀는 본모습으로 왕생을 죽인다. 굳이 ‘畫皮’를 입고 미녀로 둔갑해서 자신을 은폐할 이유가 없었다. 고생을 많이 하여 획득한 ‘화피’라는 기술이 굳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괴가 인간으로 둔갑하기가, 다시 말해 요괴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11) 生又力白，道士乃去，曰：“惑哉！世固有死將臨而不悟者！”生以其言異，頗疑女，轉思明明麗人，何至爲妖，意道士借魘禳以獵食者。無何，至齋門，門內柱不得入，心疑所作，乃逾堦坦，則室門已閉。躡足而窗窺之，見一獐鬼，面翠色，齒嶮嶮如鋸，鋪人皮于榻上，執彩筆而繪之。已而擲筆，舉皮如振衣狀，披于身，遂化爲女子。睹此狀，大惧，獸伏而出。急追道士，不知所往。遍迹之，遇于野，長跪求救，請遣除之。道士曰：“此物亦良苦，甫能覓代者，予亦不忍傷其生。”（『畫皮』，『聊齋志異』，『聊齋志異』 번역은 김혜경 옮김, 『聊齋志異』 1~6, 민음사, 2002에 따랐으며, 이하 같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둘째, 후반부는 乞人의 침을 받아먹어 그것을 남편의 심장으로 탈바꿈시킨 아내의 헌신에 의해 남주인공이 부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식인귀는 남주인공의 심장을 빼앗아갔지만, 퇴치당하지도 않고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 설화는 후반부만 놓고 보면 바람기 많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헌신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축이 달라지는 서사적 맥락의 일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설화에는 세 가지 유형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는 요괴, 요괴의 욕망에 휘둘리는 남주인공, 그 남자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는 여주인공 등이 그들이다. 전·후반부의 맥락 일탈은 이들의 '인간적'인 것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요괴와 남주인공은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욕망의 성취를 위해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요괴가 욕망의 성취를 위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면, 남주인공은 그 요괴의 욕망에 편승하여 자신의 욕망도 해소하려고 한다. 그들의 욕망은 서로를 향한 '애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똑같은 '심장'을 갖게 되는, 실상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요괴가 가져간 남주인공의 심장은 여주인공의 인육과 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여기서 여주인공의 인육과 희생이야말로 저들의 욕망과는 별개의 고귀한 '인간적'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설화의 인물 유형은 사실 두 가지이며, 요괴와 남주인공이 추구하는 애육을 통한 본능으로서의 '인간적' 가치가 여주인공의 헌신을 통한 윤리로서의 '인간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두 편의 설화를 통해 이류의 속성은 균일하지 않고, 이류가 추구한 '인간적' 가치의 의미에 따라 상대적인 것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위의 설화에 등장한 이류는 본래부터 인간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었는데, 원래 인간이었다가 나중에 귀신이 된 존재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러한 '명혼' 모티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韓重은 부모들에게 紫玉의 일을 물었다. “吳王이大怒해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속을 썩이다 병이 들어 죽은 자옥은 땅에 이미 문헌 신체가 되었느니라.” 부모들의 말에 한중은 통곡을 하면서 짐승을 잡고 폐백 등 제물들을 준비해 자옥의 묘 앞으로 가서 제를 지냈다. 그런데 자옥의 혼령이 무덤에서 나와 한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간 다음 당신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왕에게 청혼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는데, 생각 밖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운명이 되었네요. 이제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자옥은 주위를 돌아 보더니 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

노래를 마친 자옥은 흐느끼며 울다가 한중의 손목을 꼭 잡고 ㉠자기 무덤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였

다. 그러나 한중은 “생과 사는 不同한 세상인데 이러다가 오히려 화를 불러올까봐 두렵소. 미안하지만 그 말은 따를 수 없소.” 하고 저어하니 자옥은, “생과 사가 부동한 세상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갈라지면 영영 만날 수 없을 거예요. ㉞제가 귀신이기에 당신을 해칠까봐 그러세요? 성심으로 원하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한중은 그 말에 감동되어 자옥을 따라 무덤으로 들어갔다.¹²⁾

이 설화의 남주인공 한중은 오왕의 딸 자옥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학업 때문에 한 이별이 그대로 사별이 되어버린 처지이다. 한중은 애달픈 마음에 무덤 앞에서 제를 올리고, 죽은 자옥이 이에 감응하여 나타난다. 여기서 살아남은 이가 과연 망자의 감응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일지도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한중은 ‘生死不同’의 원칙을 앞세우며 ㉞의 간청을 거부한다. 앞서 살펴본 장화와 왕생이 각각 극단적 태도로 이계의와의 교류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였다면, 한중의 반응은 여느 인간의 태도에 한결 가까운 것이다. 망자의 묘 앞에서 통곡하는 생존자는 망자를 한없이 그리워하지만, 망자가 귀신으로 나타난다면 공포에 질릴 것이다. 더군다나 망자와 함께 저승으로 떠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랄 리도 없다. 이 설화는 이처럼 살아남은 자의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 지닌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망자를 앞에 둔 슬픔은 재회에 대한 갈구라기보다는 자기연민에 더 가깝다. 그래서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의 재회를 기뻐하기보다는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계산할 따름이다.

살아남은 자의 자기연민에 비하면 망자의 그리움과 반가움은 그저 진솔하다. ㉞처럼 순진한 마음에 자신이 머물게 된 공간으로 남은 자를 부르는가 하면, ㉞처럼 자신이 이류가 되어서도 우리 사이는 달라진 게 없다며 남주인공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남녀 주인공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를 적극적인 여주인공과 수동적인 남주인공이라는 애정소설 일반의 구도에 따라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간으로 살아남은 자보다 한결 더 ‘인간적’인, 이제 이계의 존재가 되었다는 제약을 넘어선 ‘인간적’인 애정을 지니게 된 망자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명혼’ 화소의 애정이 지닌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므로,

12) 三年, 重歸, 詰其父母, 父母曰: “王大怒, 玉結氣死, 已葬矣.” 重哭泣哀慟, 具牲幣往弔於墓前. 玉魂從墓出, 見重流涕, 謂曰: “昔爾行之後, 令二親從王相求, 度必克從大願, 不圖別後遭命, 奈何!” 玉乃左顧, 宛頸而歌曰: (……) 歌畢, 獻歔流涕, 要重還冢. 重曰: “死生異路, 懼有尤愆, 不敢承命.” 玉曰: “死生異路, 吾亦知之, 然今一別, 永無後期, 子將畏我爲鬼而禍子乎? 欲誠所奉, 寧不相信.” 重感其言, 送之還冢. (『搜神記』, 권 16-394).

굳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을 앞서 살펴본 이류의 존재들이 추구한 인간과의 교유에서 제기된 ‘인간적’인 것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볼 필요성을 제시하려 한다. 이들 설화에는 인간답지 못한 매정한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류라는 속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간과 이류의 애정 실현에 제약을 주는 갖가지 요소로부터 ‘인간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고민은 더욱 짙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애정의 문제를 그에 대한 제약을 중심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류와의 동화

여기서는 애정 관계로 맺어진 인간과 이류가 상대방의 공동체 속에 동화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류 사이의 교혼은 토테미즘의 반영 또는 족외혼의 상징처럼¹³⁾ 해석되기도 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신분상 격차보다 더한 혼사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명혼’ 화소가 비극적 결말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요재지이』에는 인간이 이류 사회에, 귀신이 인간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사례가 각각 나타난다. 먼저 인간이 이류 사회에 포함되는 과정을 보겠다.

하루는 皇甫 공자가 무척이나 수심에 찬 기색으로 孔生에게 말했다. “하늘이 우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으신지요?” 공생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선뜻 나서면서 자신이 그 일을 맡겠다고 자원했다. 공자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다 같이 공생의 방으로 들어와서는 나란히 늘어서서 그에게 큰절을 올리게 하였다. 깜짝 놀란 공생이 숨넘어갈 듯한 어조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었다. 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오늘 하늘이 저희들에게 벼락을 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 온몸으로 재난에 맞선다면 우리 일가족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일을 떠맡고 싶지 않으시다면 당신마저 연루되게 할 수 없으니 얼른 아들을 안고 떠나십시오.” ② 공생이 그들과 생사를 함께 하겠노라고 맹세하자, 공자는 그에게 칼을 들고 대문 앞을 지키게 하면서 당부했다.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공생은 공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곧이어 정말로 먹구름이 몰려들어 해를 가리더니 사방이 칠흑처럼 캄캄해졌다. (…… 괴물이 나타나 嬌娜를 납치하려는 것을 공생이 칼로 저지하다가 숨이 끊어지는데, 여주인공 교나가 붉은 구슬을 그 입에 넣어 되살려주고는 함께 공생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¹⁴⁾

13) Claude Levi-Strauss, 류재화 옮김, 『오늘날의 토테미즘』, 2012, pp.25~26 서문 참조.

14) 一日, 公子有憂色, 謂生曰: “天降凶殃, 能相救否?” 生不知何事, 但銳自任, 公子趨出, 招一家俱入, 羅拜堂上, 生大駭, 亟問, 公子曰: “余非人類, 狐也, 今有雷霆之劫, 君肯以身赴難, 一門可望生全, 不然, 請抱子而行, 無相累.” 生矢共生死, 乃使仗劍於門, 囑曰: “雷霆轟擊, 勿動也!” 生如所教, 果見陰雲晝暝, 昏墨如翳. (『嬌娜』, 『聊齋志異』).

위의 설화는 인간 남성이 이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용인되기 위해 ㉞에서 일종의 入社式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죽음과 재생의 체험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㉞의 대사이다. 여기서 입사식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라, 피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이 시점에서 여주인공인 교나는 남주인공의 아내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남편이 따로 있었다. 남주인공인 공생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건 선택을 즉시 한다는 점에서 신화의 주인공들보다 더 과감해 보인다. 이렇게 더 과감한 선택의 결과 덕택인지, 공생은 귀환의 과정에서 이계의 존재들까지 한꺼번에 데리고 오게 된다. 때마침 교나의 남편은 죽고, 이들은 공생의 고향에 정착하지만 여우의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이 설화에서 남주인공과 여우 일족은 신의로써 함께 싸우게 된다. 이 신의는 공생과 교나 사이의 애정이 공동체의 차원에까지 확장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 설화에서 인간과 이류가 공존할 수 있는 ‘인간적’ 근거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공동체적 신의에까지 이어지지 못한 애정 관계를 뒤에 살펴볼 『삼국유사』의 「金現感虎」에 등장한 호랑이 일족으로부터 볼 수 있다.

또한 이류가 인간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은 다음의 「小倩」에서 단계별로 묘사되었다.

小倩은 매일 새벽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대야에 세숫물을 받아 시중을 든 뒤 다른 방으로 물러가 집안일을 했는데, 어느 하나 어머니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다. 황혼 무렵이 되면 그녀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서재로 왔다.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불경을 읽다가 寧采臣이 잠자리에 들려는 기색을 보이면 참담한 모습이 되어 (무덤으로) 물러가곤 하였다.

소천이 오기 전에는 영채신의 아내가 오랜 병으로 누워 있는 바람에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소천이 온 뒤부터 신세가 매우 편해졌으므로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몹시 기꺼워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에게 익숙해지다 보니 소천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㉞ 드디어는 그녀가 귀신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저녁에 그녀를 혼자 떠나가게 할 수가 없어 마침내는 자기와 한 방에서 기거하게 하였다. 소천은 막 왔을 당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㉞ 반년쯤 지나서 차츰 뭉게 쉰 죽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모두 소천을 사랑하여 그녀가 귀신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래지않아 영채신의 아내가 죽었다. 어머니는 소천을 머느리로 들일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에게 이롭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소천은 어머니의 염려를 눈치 채고 틈을 보아 이렇게 아뢰었다. (…… 자손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영채신에게 아들 셋을 가질 운명이 있다고 하여 안심시킴)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믿고 아들과 상의했다. 영채신은 매우 기뻐하면서 잔칫상을 차려놓고 친척들을 초대한 다음 그들에게 결혼을 알렸다. 어떤 사람이 신부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소천은 대담하게도 화려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천을 쳐다보았는데, ㉞ 그녀를 귀신이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선녀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었다.¹⁵⁾

15) 女郎入廚下, 代母尸糞. 入房穿戶, 似熟居者. 日暮, 母畏懼之, 辭使歸寢, 不爲設床褥. 女窺知母意, 卽

여주인공 소천은 나무귀신의 부림을 받아 본심과는 달리 사람들을 해치다가 남주인공 영채신에 의해 구원받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첩이 되려 하지만, 영채신과 그 어머니의 만류로 여동생 역할을 일단 맡는다. 첫째 단락에 나와 있듯이 영채신 모자를 각별하게 섬긴 끝에 ㉠와 같이 그녀가 귀신임을 자각하지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 그 증거로서 ㉡에서 그녀가 인간의 식량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에서 영채신 모자가 소천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앞서 『교나』에서 공생이 여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였으며, 맨 처음 살펴본 『수신기』 421번 설화의 여우가 장화로부터 얻고 싶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들 두 편의 설화에서 신의는 인간과 이류의 존재가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며, 두 존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공동의 ‘인간적’ 가치였다.

인간과 이류 사이에 신의가 형성되었을 때, 그 성과는 ㉢와 같이 나타난다. 소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존재이지만, 귀신일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선녀일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중국에서는 망자가 혼과 백으로 나뉜다고 보았으며, 이들을 선한 존재인 신과 악한 존재인 귀로 대칭시키기도 했다. 소천은 본래 귀에 속하는 존재였는데, 신의의 관계가 완성됨으로써 인을 넘어서 신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류의 존재가 인간의 믿음을 얻기란 망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희박한 일이지만, 일단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귀로부터 인을 거쳐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으로 극찬한다.¹⁶⁾

竟去。過齋俗入，卻退，徘徊戶外，似有所懼。生呼之。女曰：“室有劍氣畏人，向道途中不奉見者，良以此故。”寧悟爲革囊，取懸他室。女乃入，就燭下坐。移時，殊不一語。久之，問：“夜讀否？汝少誦『楞嚴經』，今強半遺忘，洵求一卷，夜暇，就兄正之。”寧諾。又坐，默然，二更向盡，不言去。寧促之，愀然曰：“異域孤魂，殊怯荒墓。”寧曰：“齋中別無訂寢，且兄妹亦宜遠嫌。”女起，眉顰蹙而欲啼，足履囊而懶步，從容出門，涉階而沒。寧竊憐之，欲留宿別榻，又懼母嗔，女朝旦朝母，捧匱沃盥，下堂操作，無不曲承母志。黃昏告退，輒過齋頭，就燭誦經。覺寧將寢，始慘然去。先是，寧妻病廢，母勅不可堪，自得女，逸甚，心德之。日漸稔，親愛如己出，竟忘其爲鬼，不忍晚令去，留與同臥起。女初來未嘗食飲，半年漸啜稀饘，母子皆溺愛之，諱言其鬼，人亦不之辨也。無何，寧妻亡，母隱有納女意，然恐于子不利。女微窺之，乘間告母曰：(……)母信之，與子議，寧喜，因列筵告戚黨，或請覲新婦，女慨然華妝出，一堂盡胎，反不疑其鬼，疑爲仙。(『聶小倩』，『聊齋志異』)。

- 16) 이류가 남성으로서 인간 사회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역시 인간과의 차이가 문제시되며, 이 차이는 끝내 극복되지 못하거나 인간 여성이 이류의 사회에 편입됨으로써 해소된다. 『소천』에서 이류가 인간성을 획득하고 신성에 이르는 모습은 이에 비하면 상당히 이채로운 것이다. 인간과의 차이가 문제시된 사례는 이우학, 『인디언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에 수록된 『갈까마귀와 할머니』(pp.75~81), 『올빼미 남편』(pp.59~63) 등 참조.

이상 두 편의 사례에서는 인간과 이류 사이의 신뢰 관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공동체에 무조건 편입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요컨대 이질성에 대한 배려로부터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나』에서는 남주인공에게 여우 무리와 함께 싸우거나 떠날 것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소천』의 여주인공은 성불의 기회를 마다하고 남주인공의 곁에서 보은하여 자신의 애정을 성취하기를 기다린다. 그 과정이 설령 어렵고 가혹하더라도 주체적인 선택이었으며,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진정한 의미의 정착과 공생을 이루기까지 그 곁에 머문다. 그저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완성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본다는 것이다. 애정 화소는 이러한 믿음과 기다림의 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Ⅲ. 이류와의 애육의 의미

1. 인간을 향한 이류의 애육과 결연

앞서 살펴본 중국의 사례에서 애정은 이류 교유의 제 양상 가운데 ‘인간적’인 것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그 역할은 상대방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하여 믿음을 얻어가는 공동체적 가치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인간을 향한 이류의 육체적 욕망으로서 ‘애육’이 서사의 계기가 되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일본의 사례를 먼저 본다.

소메도노 황후에게 모노노케[物怪]가 썩었다. 고승의 수법도 효험이 없어, 영험력이 출중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곤고산[金剛山]의 스님을 불렀다. 스님은 늙은 여우로 정체가 밝혀진 모노노케를 보기 좋게 퇴치한다. 그런데 한 줄기 바람에 휘장의 장막이 접혀진 순간, 황후의 아름다운 자태를 틈 사이로 보고 애육에 사로잡혀 버린다. 애육을 주체하지 못한 스님은 황후를 꺼안았고, 곧 스님은 侍醫인 다이마노 가모쓰구에게 제압당해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요시후사가 천황에게 간해, 스님은 용서를 받고 산으로 돌아오지만, 애육은 더해질 뿐이었다. 스님은 결국에는 굶어죽어 오니가 되어, 다시 궁중에 나타나 황후의 마음을 사로잡아 애육의 원을 푼다. 주위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뿐 특별한 대책도 없다. 오이는 가모쓰구를 저주해 죽이지만,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오니는 3개월 정도 출몰하지 않는다. 천황도 안도해서 황후의 처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 그때 또 오니가 갑자기 출몰해서 황후와 동침을 한다. 천황도 비탄할 뿐이었다고 한다.¹⁷⁾

17) 『今昔物語集』, 권20-7화. 한국어 번역은 小峯和明, 이시준 옮김, 『일본설화문학의 세계』, 소화, 2009에 따름.

이 설화의 원형은 『相應和尚傳』이며, 그 기원은 10세기 초엽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 원형은 불교에 의한 토속신앙의 악신 퇴치담에 가까운데,¹⁸⁾ 위에 인용한 『今昔物語集』의 사례에는 후일담이 대폭 추가된 모습이다. 추가된 후일담은 고승도 육욕을 이기지 못하여 물리칠 수 없는 악귀가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불교를 모독하는 쪽에 가깝다. 따라서 이 설화의 전승은 외래신앙인 불교와 일본 토속신앙이 서로의 이질성을 용납하지 못하고 각각 상대방을 이류, 요괴로 취급하며 별인 갈등의 한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한국의 설화에서도 이류가 갖는 애육은 서사 전개에 계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상대방과 맺은 약속을 비롯한 언어적 구속에 이끌리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해에 왕이 임금자리에서 쫓겨나 죽었다. 그 후 2년 만에 桃花女의 남편도 또한 죽으니, 죽은 지 열흘 되는 밤중에 홀연히 왕이 옛날의 평상시 같이 여인의 방에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예전에 허락을 하였거니와 지금은 너의 남편이 없으니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겠느냐?”라 하자 그녀는 가벼이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여쭙어 보았다. 부모가 말하기를, “임금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어기겠느냐?” 하고 딸을 왕의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왕이 머무른 7일 동안 항상 5색 구름이 집을 덮고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더니 7일 후에 홀연히 왕의 자취가 없어졌다. 여인이 이로 인해 태기가 있다가 달이 차서 해산을 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면서 사내아이 하나가 태어났으니 이름을 鼻荊이라 했다.²⁰⁾

도화녀는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왕의 청을 거절하지만, 왕은 그녀에게 남편이 없다면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해서 약속을 받아들인다. 백제 지역의 都彌說話에서는 왕이 곧 남편을 해치지만, 여기서의 왕은 살아서 기다릴 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계속 기다린다. 도화녀의 ‘약속’에 구애받아 죽음을 넘어선 애육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약속을 비롯한 언어적 요소로부터 구속받는 측면은 『삼국사기·열전』에도 「溫達」과 「薛氏女」, 「劍君」 등 여러 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역사와 설화 전반에 걸쳐 한국의 삼국시대에 매우 인기 있었던 화소로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삼국유사』의 다른 설화에서도 언어에 의한 구속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8) 小峯和明, 위의 책, pp.60~61.

19) 이러한 종교 갈등은 한국의 설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불교의 고승에 의한 악룡의 퇴치 또는 감복의 사례는 있어도 이렇게 화해 또는 퇴치가 불가능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20) 王放而遣之。是年，王見廢而崩，後二年其夫亦死。浹旬忽夜中，王如平昔，來於女房曰：“汝昔有諾，今無汝夫，可乎？”女不輕諾，告於父母，父母曰：“君王之教，何而避之。”以其女入於房，留御七日，常有五色雲覆屋，香氣滿室，七日後，忽然無蹤，女因而有娠，月滿將產，天地振動，產得一男，名曰鼻荊。（「桃花女 鼻荊郎」, 『三國遺事』, 『三國遺事』 번역은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민족사, 2005를 따랐으며, 이하 같음).

처녀가 들어와 金現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낭군이 저의 족속에 욕스럽게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사양하고 거절하였으나, 이제는 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속에 품은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천첩이 낭군과 비록 같은 종족은 아니지만 하루저녁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 그 의리가 부부의 정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세 오빠의 악행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니 온가족의 재앙을 제가 지려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날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만 하겠습니까? 제가 내일 저자에 들어가 심하게 사람을 해치면 사람들이 저를 어찌할 수 없으므로 대왕께서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을 사람을 모집할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저를 쫓아 성의 북쪽 숲속까지 오시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²¹⁾

앞서 살펴본 「교나」에서 남주인공과 여우 가족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성장시킬 시간을 지녔던 것과는 달리, 「김현감호」의 남녀 주인공은 하룻밤 탐돌이를 통해 짧은 인연을 맺었을 따름이었다. 「교나」에서의 종족간 신의에 비하면 하룻밤의 애육에 이끌린 설익은 인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주인공인 호랑이 처녀의 ‘약속’을 통해 이들의 인연이 갖는 의미는 증폭된다. 호랑이 처녀는 김현과의 이질성을 자각하고 함께 했던 시간의 짧음도 인정하지만, 그 ‘의’가 부부의 인연과 맞먹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들의 시작은 하룻밤의 애육이었을지라도, 그 성과로서 헌신의 크기는 어느 누구의 사랑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었다. 호랑이 처녀는 세 오빠를 대신하여 희생하되, 반드시 김현의 손에 죽겠다고 약속한다. 왕이 2급의 벼슬을 현상금으로 걸기까지 호랑이의 횡포는 엄청났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포획 시도도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 과정에서 죽을 지경의 고통을 받더라도 죽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반드시 김현의 손에 죽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맹세의 강렬함이야말로 언어로써 맺은 약속의 힘이였다.

그리고 『대동운부군옥』에 인용된 『수이전』 일문 가운데 다음 자료는 특이하게 남주인공이 망자로 등장한다. 이들의 관계를 꼭 ‘애육’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언어와 정표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와 상통한다.

신라 崔侁은 자를 石柵이라 했다. 그가 사랑하는 첩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더니 몇 달 후 죽고 말았다. 8일 후에 최항의 혼이 첩의 집에 갔는데, 첩은 최항이 죽은 줄 모르고 반가이 맞았다. 항이 머리에 꽂은 석남가지를 나누어 첩에게 주며 말하기를 “부모가 그대와 살도록 허락하여 왔다.”고 하기에 첩은 항을 따라 그의 집까지 갔다. 그런데 항은 담을 넘어 들어간 뒤로 새벽이 되어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그 집 사람이 그녀가 온 까닭을 물으매, 그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21) 女人謂郎曰：“始吾恥君子之辱臨弊族，故辭禁爾，今既無隱，敢布腹心，且賤妾之於郎君，雖曰非類，得陪一夕之歡，義重結縞之好，三兄之惡，天既厭之，一家之殃，予欲當之，與其死於等閑人之手，曷若伏於郎君刃下，以報之德乎！妾以明日入市爲害劇，則國人無如我何，大王必募以重爵而捉我矣，君其無怯，追我乎城北林中，吾將待之。”(『金現感虎』, 『三國遺事』).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나? 향이 죽은 지 이미 8일이 지났으며 오늘이 장삿날이다.”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석남가지를 나누어 머리에 꽂았으니 가서 확인해 보라.” 하였다. 이에 관을 열고 보니 정말 향의 머리에 석남가지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첩이 죽으려 하자, 향이 다시 살아나서 백년해로하였다.²²⁾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보면 한국에서 ‘명혼’ 화소는 약속과 그 성취를 보여주는 서사 구조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띠다고 볼 수 있겠다. 약속을 비롯한 언어의 구속은 삶과 죽음의 경계,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력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딱히 원시·고대문화의 주술적 사유와 연관시킬 필요성은 없다. 그보다는 고대 한국 문화에서 인간만이 지닌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가 인간만이 아닌 이계와 이류의 존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본 점을 특기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망자와 요괴에 속한 존재들까지 언어로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음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언어’의 힘은 본디 ‘아름다움’의 힘과 같은 성질의 것이었던 듯하다. 앞서 살펴본 이류의 약속과 언어에 대한 집착은 굳이 고대 한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어의 힘을 여성의 아름다움이 갖춘 권능 또는 위세와 연결시킨 점은 고대 한국문화의 한 특색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다시 이틀간 길을 가다가 또 바닷가 정자에서 점심을 먹던 중에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아채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純貞公이 었어지고 자빠지며 발을 굴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는데, 지금 그까짓 바다 속의 미물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지역 내의 백성들이 나아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 했다. 순정공이 그 말대로 하였다니 용이 바다로부터 부인을 모시고 나와 공에게 인도했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七寶로 꾸민 궁전의 음식이 맛있고 기쁘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라 했다. 부인의 옷에 스며든 이상한 향기는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수로부인의 용모가 세상에서 견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귀신이나 영물에게 불들려갔다.²³⁾

22) 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顛喜迎接. 伉首插石柁, 枝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 到其家, 伏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曰: “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 “良人與我, 分插石柁枝, 可以此爲驗.” 於是, 開棺視之, 屍首插石柁,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絕, 伉乃還蘇, 偕老三十年而終. (『首插石柁』, 『大東韻府群玉』).

23) 便行二日程, 又有臨海亭. 畫饈次, 海龍忽攬夫人入海, 公顛倒墜地, 計無所出. 又有一老人, 告曰: “故人有言, 衆口鑠金, 今海中傍生, 何不畏衆口乎. 宜進界內民, 作歌唱之, 以杖打岸, 則可見夫人矣.” 公從之, 龍奉夫人出海獻之. 公問夫人海中事, 曰: “七寶宮殿, 所饈甘滑香潔, 非人間煙火.” 且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水路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水路夫人』, 『三國遺事』).

위 설화에서 '이향'은 앞서 『桃花女 鼻荊郎』에서 이류교혼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문장은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계기는 수로부인이 지닌 '아름다움' 탓이다. 그녀의 아름다움 탓에 이류에 속하는 존재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인데, '못 사람들의 입'을 통한 언어의 발현이 이류의 욕망을 제어하고 있다. 그런 데 이류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아름다움'의 사례는 다음 설화에도 보인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그[處容]의 아내로 삼게 하고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자 다시 級干이라는 관직도 주었다. 그의 처는 매우 아름다워 疫神이 그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한 뒤 밤이면 그의 집으로 가서 몰래 그녀와 잤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자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나왔다.²⁴⁾

위 설화는 처용의 巫祖로서의 권능이 관용의 정신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처용 부인과 역신의 관계는 앞서의 수로부인과 해룡 사이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편의 설화는 시대적 배경이 '약속' 화소가 나오는 사례들과 비슷하거나 더 후대 이기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무속과 주술적 사유의 자취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설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만으로 그 단계의 선후를 판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외래신앙과 고유 신앙이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결하는 사례에서 적대적인 이류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국은 인간의 언어를 통한 '약속'과 인간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류의 존재와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제한적인 사례만으로 이것이 한·일 양국의 속성에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사례 또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의 이류는 적대적이고, 한국의 이류는 우호적이라는 식의 단순한 지적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 무불습합 또는 신불습합 과정에서 양국이 겪은 문화사적 전개의 차이점이라는 거대한 논리를 주장하지도 않겠다. 다만 일본에서와 같이 외래신앙 또는 보편문화에 대한 적대자로서 퇴치 불가능한 이류가 한국에도 있었는지, 한국에서와 같이 언어적 약속 또는 인간적 아름다움을 좇고 따르려는 이류가 일본에도 흔한지,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례를 많이 찾지 어렵다면 이는 양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많이 찾을 수 있다면 양국의 교류에 따른 값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24)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處容郎 望海寺』, 『三國遺事』).

2. 이류를 향한 인간의 시각과 애육

앞서 살펴본 한·일의 사례는 이류의 인간을 향한 애육이 서사의 중심축이었다.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이류를 향한 인간의 감정이 중심축이 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먼저 일본의 사례이다.

옛날 歌明 임금이 다스릴 때, 三乃國의 大乃郡 남성이 아내로 삼을 만한 여인을 구하려고 말을 타고서 길을 나섰다. 그리하여 너른 들판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다. 여인이 사내에게 눈길을 보내어 따를 듯이 하자, 사내가 눈짓을 하며 말하였다. “남자는 어디로 가시오?” “좋은 인연을 구하려고 가는 여인입니다.” 사내가 또 말하였다. “내 아내가 되겠소?” “그러겠습니다.” 사내는 곧바로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서로 정을 통하고 함께 살았다. 이윽고 여인이 아이를 배었고, 사내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때 그 집에는 개가 있었는데, 12월 15일에 새끼를 낳았다. 그 개의 새끼는 언제나 안주인을 향해서 덤벼들 듯이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며 짖어댔다. 안주인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 개를 때려죽이세요. 그렇지만 남편은 가엾게 여겨서 죽이지 않았다. 2월인가 3월인가 즈음에 그 해의 곡식을 뺏을 때, 이 안주인이 곡식을 뺏는 여인들에게 갖다 줄 새참을 준비하려고 디딜방앗간에 들어갔다. 그때 그 개가 안주인을 깨물려고 쫓아다니면서 짖어댔다. 그러나 안주인은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여우의 모습이 되어서는 닭의 머리 위로 올라갔다. 이를 본 남편이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너를 잊지는 않겠다. 언제든지 와서 자고 가라.”

그리하여 남편이 한 말을 외워두었다가 와서 함께 자곤 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키즈네[岐都禰: ‘와서 자다’와 ‘여우’를 함께 뜻함]라고 한다. 그때 그 아내는 붉은 색의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요조 숙녀처럼 우아하게 치맛자락을 끌고서 갔다고 한다. 남편은 그 떠나는 모습을 보고는 애뜻한 마음으로 노래하였다.²⁵⁾

이 설화는 앞서 보았던 중·한의 사례와는 그 서술방식이 많이 다르다. 우선 남녀가 만나 결연하기까지의 과정이 과감할 정도로 압축·생략되었다. 그 대신 여주인공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상세하고, 남주인공의 和歌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서사적 중요성에 따라 긴 시간을 짧게 줄이는가 하면, 짧은 시간을 길게 늘렸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방식의 차이보다 밑줄 친 부분이 본 설화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류인 여우라도 자기 자식의 어머니니 다시 돌아오라 말한다. 사실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간청에

25) 昔欽明天皇御世, 三乃國大乃郡人應爲妻, 覓好孃乘路而行. 時曠野中遇於姝女. 其女媚壯, 馴之壯睇之. 言: “何行稚孃?” 孃答: “將覓能緣而行女也.” 壯亦語言: “成我妻耶?” 女: “應.” 答言, 即將於家, 交通相住. 此頃懷妊, 生一男子. 時其家犬, 十二月十五日生子. 彼犬之子每向家室, 而期剋睡皆嗥吠. 家室脅惶, 告家長: “此犬打殺.” 雖然患告, 而猶不殺. 於二月三月之頃, 設年米春時, 其家室於稻春女等, 將充間食於碓屋. 即彼犬將碎家室而追吠. 即驚凜恐, 成野干, 登籠上而去. 家長見, 言: “汝與我之中子相生, 故吾不忘. 每來相寐.” 故誦夫語而來寐. 故名爲岐都禰也. 時彼妻著紅襪染裳而窈窕裳襪引逝也. 夫視去容, 戀歌曰: (『孤爲妻令生子緣』, 『日本靈異記』, 上 2. 『日本靈異記』 해석은 정천구 역, 『日本靈異記』, CIR, 2011을 따랐으며, 이하 같음).

도 개를 죽이지 않은 순박한 존재였다. 따라서 『수신기』와 『요재지이』의 주인공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나, 오랜 시간을 거쳐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야 가능할 표현을 서슴지 않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주인공의 마음씨야말로 ‘인간적’인 포용력을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화피』의 남주인공과 식인귀가 공유했던, 부정적인 욕망으로서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설화도 있다.

和泉 지방의 泉郡에 있는 血淳山寺에 吉祥天女の 塑像이 있었다. 聖武 임금 시절에 信濃 지방의 한 優婆塞가 그 산사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천녀의 소상을 훔쳐 보고는 마음에 애욕이 일어났다. 그 마음에 끄달려서 사모하더니, 하루 六時마다 바람을 세워서 말하였다. “천녀와 같이 아리따운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바새는 꿈에 천녀의 소상과 동침하였는데, 이튿날 깨어나서 그 소상의 치마를 보니 허리춤이 깨끗하지 못하고 얼룩이 저 있었다. 이 우바새는 그걸 보고서 무척 부끄러워하며 말하였다. “내 천녀와 같은 여인을 바랐을 뿐인데, 어찌 천녀께서 스스로 정을 통하셨는지...” 부끄러워서 남에게는 말을 못하였다. 그러나 그 제자가 몰래 들었다. (중략)

참으로 알아라. 깊이 믿는 자에게는 감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는 정말 기이한 일이다. 『涅槃經』에서도 “음탕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림 속의 여인을 보고도 애욕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리라.²⁶⁾

승려가 애욕으로 인해 파계한다는 설정은 한국에서 『삼국유사』의 調信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결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다. 설화가 지닌 화소의 기원을 불전으로부터 소개하여 교훈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정리하면 『일본영이기』에는 2장에서 살펴본 중국 설화의 ‘인간적’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관 지어 논의할 만한 사례가 더러 있으며, 그것이 중국에 비하면 간결하고 직접적인 수사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류를 퇴치하는 한편, 또다른 종류의 이류와 결연하는 내용의 설화가 있다. 『삼국유사』의 居陀知說話가 그것인데, 이 화소는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 가운데 作帝 建이라는 인물의 설화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도 하다.

居陀知가 愁心에 잠겨 瑟에 서 있노라니 홀연히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 말하기를, “나는 西海若인 데 해 뜰 때마다 늘 짧은 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陀羅尼를 외우면서 이 못을 세 번 돌면 우리 부부

26) 和泉國泉郡血淳山寺, 有吉祥天女像. 聖武天皇御世, 信濃國優婆塞, 來住於其山寺. 睇之天女像, 而生愛欲, 繫心戀之, 每六時願云: “如天女容好女賜我.” 優婆塞夢見婚天女像, 明日瞻之, 彼像裙腰不淨染汗. 行者視之, 而漸愧言: “我願似女, 何忝天女專自交之?” 媿不語他人, 弟子偷聞之. (中略) 諒委! 深信之者, 無感不應也. 是奇異事矣. 如涅槃經云: “多婬之人, 畫女生欲”者, 其斯謂之矣. (『生愛欲戀吉祥天女像感應示奇表緣』, 『日本靈異記』, 中 13).

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로 뜨게 됩니다. 젊은 중은 내 자손의 간과 창자를 빼먹고 오직 남아있는 것 이라곤 우리 부부와 딸 하나뿐이오,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올 것이니 그대는 활을 쏘아주시오.”라 했다. (중략) 이에 노인이 나타나 사례하면서 말하기를, “공의 덕택으로 내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소. 청컨대 내 딸을 아내로 삼아주길 바라오.” 하니 거타지가 말하기를, “따님을 주시고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라 했다. 노인이 그의 딸을 한 가지 꽃으로 변화시켜 그의 품속에 넣어주고 또다시 두 용에게 명령하여 거타지를 모시고 使臣이 탄 배를 따라가도록 했다.²⁷⁾

다라니를 외우는 중으로 둔갑한 여우를 퇴치하는 한편, 어족임이 분명하고 꽃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다른 이류와 결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설화의 여주인공에 비해 서해약의 딸은 서사적 전개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 여러 종류의 이류가 등장하여 주인공과 대립적 성격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지만, 이들의 정체가 비유 또는 상징하는 바를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찾기 어렵기에, 더 이상의 추론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한·일의 사례를 통해 중국에서 인간과 이류 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된 ‘인간적’인 것에 대한 탐색이 변용 또는 심화되는 사례를 찾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인간적’인 요소가 언어를 통한 약속이나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변용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보다 간명하고 직접적인 서술 방식으로 이 문제가 표현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인간적’ 요소의 탐색이라는 구도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자료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해당 자료의 문화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V. 맺음말

본고는 이류 교유의 화소를 지닌 한·중·일 고대설화 가운데 일부는 서사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간보다는, 서사의 동인·계기를 부여하는 이류와 이계의 존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해했을 때 그 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명혼, 인귀교환, 시애 등으로 불리어 온 제한된 범위 대신에 이류 교유라는 보다 넓은 범위를 선택하였다. 이로써 때로는 만남의 대상이 되거나 퇴치해야 할 존재가 되는가 하면, 서로의 세계에 동화되고자 하는 등 인간과 이류가 맺는 다양한 관

27) 居陀愁立島嶼，忽有老人，從池而出，謂曰：“我是西海若，每一沙彌，日出之時，從天而降，誦陀羅尼，三繞此池，我之夫婦子孫，皆浮水上，沙彌取吾子孫肝腸，食之盡矣，唯存吾夫婦與一女爾。來朝又必來，請君射之。”（……）於是老人出而謝曰：“受公之賜，全我性命，請以女子妻之。”居陀曰：“見賜不遺，固所願也。”老人以其女，變作一枝花，納之懷中，仍命二龍，捧居陀，趨及其使舡。（『眞聖女大王 居陀知』，『三國遺事』）。

계망을 논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비교는 각국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밝힘으로써 각국의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상대성의 특질을 제기하는 방향에까지 나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 설화의 형성 연대가 다양하고, 또 설화가 수록된 설화집의 형성 연대가 비교적 긴 시기에 걸쳐 있어 그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란 쉽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이류와의 교류 과정 자체가 서사문학으로서 의미를 지닌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류 또는 그 교류 과정이 문화사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그것은 언어의 권능에 대한 존중으로, 일본의 경우 그것은 보편신앙에 대한 적대자로서 고유 신앙의 구체적 활동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설화를 통해 논증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관점이 모든 설화에 다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한·중·일 설화의 공통 유산으로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 각국 문화의 이질성을 넘어선 공동성의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이류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선이 갖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으로부터 찾을 가능성에 그 근거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이계의 존재로부터 촉발되는 ‘애욕’의 화소에 집중하였다. 애욕이 이계의 존재로부터 촉발된 경우 그것은 인간과의 교류를 바라는 욕망의 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특정 문헌에서는 해당 문화권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변주를 지니면서 인간 중심의 서사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애욕’의 화소를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다르게 ‘교유’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류에 의해 촉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이류의 존재들이 인간으로부터 상처입고 쇠락해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상처는 이질성을 포용하지 않으려는 인간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보다 폭넓은 이해심으로 이류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일 수 있었다. 이것이 같으면서 다르고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동아시아를 위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고일 : 2013. 11. 29. 심사개시일 : 2013. 12. 2. 심사완료일 : 2013. 12. 15.

〈참고문헌〉

- 千寶, 이원길 옮김, 『搜神記』 I·II, 연변인민출판사, 2007.
- 景戒, 정천구 역, 『日本靈異記』, CIR, 2011.
- 蒲松齡, 김혜경 옮김, 『聊齋志異』 1~6, 민음사, 2002.
- 김정숙, 「17,18세기 한중 귀신·요괴담의 일탈과 욕망」,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 김혜경, 「『聊齋志異』에 나타난 蒲松齡의 작가의식 - 人鬼交婚小說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35, 1995.
- 배병균, 「애정소설의 한 양상 - 『聊齋志異』의 경우」, 『인문학지』 11,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1994.
- 小峯和明, 이시준 옮김, 『일본설화문학의 세계』, 소화, 2009.
- 袁陽, 박미라 옮김, 『중국의 종교문화(原題: 生死事大)』, 길, 2000.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민족사, 2005.
- 이우학, 『인디언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 정환국, 「나말여초 전기의 '욕망의 형식화'에 대하여」, 『초기 소설사의 형성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 Claude Levi-Strauss, 류재화 옮김, 『오늘날의 토테미즘』, 2012.

The Meanings of the Companionship and Lust with the Dissimilar in East-Asian Ancient Folklore

Seo, Cheol-won

In this paper, by targeting ancient tales of early East Asian countries, we consider the problem of friendship, including the lust between the dissimilar and human, to compare the gaze of dissimilar and human in the countries of China, Korea, and Japan. In the past, work which the material the love between dissimilar and humans has been noted. But here, to expand a little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various sympathy between the two: academic friendship, extermination, assimilation, and attribution you are trying to treat the category under the companionship of dissimilar in consideration of both .

From the tale of ancient China, The dissimilar approached to the human to include the elements of human, but there is a case that human beings is in contact with the inhuman these rather. This shows the depth of the troubles of humanity that took place between strangers. On the other hand, a love story in Liaozhaizhiyi show us a figure for humans to adapt to different kinds society to resolve preferably trouble good. The dissimilar of ancient China is interested in friendship in general, including love, quest to be human is also a problem linked to the entir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dissimilar of ancient Japan and Korea, but also has triggered the story of lust, sugg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istory trends. In the case of Japan, while the treated dissimilar, as the specter heterogeneity of the person unacceptable to each other - folk faith and Buddhism.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fulfillment and commitment through the language. This will be evaluated as a result of the movement of the elements that are human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China.

Key Words : the companionship with dissimilar, Soushenji(搜神記),

Liaozhaizhiyi(聊齋志異), Samgugyusa(三國遺事), Nihonryoiki(日本靈異記)